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거룩한 삶의 유익 성경: 레위기 19장 1-10절

Tag: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19:1-10)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쉬’라 읽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뜻.

-그러나 구별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새로운 신분의 부여는 영적인 것이지 세속적인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 금을 그어 놓고 이쪽 편과 저쪽 편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붉은 옷을 입히고,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란 옷을 입히는 격이다.

그러면 이처럼 구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과는 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유사하다. 그러면 십계명과 오늘의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

말씀의 목적에 차이가 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며, 만약 지키지 않을경우에 임할 심판에 초점이 있다.

오늘의 본문은 경건생활과 관련이 있다. 정죄와 심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복과 선행에 대한 강조에 초점이 있다.

즉,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며, 만

죽을 누리게 된다.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첫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하셨다.

-거룩하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라는 것.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거룩한 것은 의미가 없다. 거룩이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것이 거룩이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정절을 지킨다는 의미도 같다. 아내 앞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가 부부간의 정절이다.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사용된 단어는 '경외'이다. (십계명에서는 공경하라 하셨다. 법적인 의미가 강하다. 경외하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강하다.)

-경외란 두려워하라는 뜻. 부모에게 예를 갖추어 존경하고 존귀하여 대우하라는 뜻. (물론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는 부모도 포함됨)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되라는 뜻. 하나님 경외의 기본. 십계명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를 갖추는 것에 초점이 있음. 그래서 예배라 함.

4절에는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 한분만 섬기는 것이 거룩이다. 다른 모든 신은 가짜이고 헛된 신이며, 그것에게 향하

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된다. 영적인 간음행위이다. 치명적인 불경이다.
십계명과는 달리 네 마음이 우상에게 끌리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으
로라도 우상을 하나 장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자체가 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5절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하셨다.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상징
한다. 그것도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마치 못해 드리는 예배나 헌신
이나 예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모두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내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어 자신을 거룩하게 한 다음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함께
거룩한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

6절에는 남겨진 음식을 3일째 되는 날에는 불사르라고 하셨다.

-이는 음식물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다.

-음식물이 상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먹거나 하지 말라 하셨
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불살라서 감염을 막도록 하셨다.

-또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음식은 유사시 몸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관리가 된다.

8절은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다.

-교회의 헌금과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9절 부터는 비로서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세속적인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할 때 그들을 위해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뜻.

-첫번째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이 나의 소산을 거리낌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예를 들면 곡식을 거둘 때에 싹쓸이 하듯 거두지 말고 남겨 두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추수해 갈 수 있도록 하라.

11, 12절 -도둑질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

13절,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품삯으 지불을 늦추지 말라.

14절, 놀부처럼 살지 말라.

15절, 재판에서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6절, 비방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17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19절,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라. (대통령령에 관한 것.)

이상과 같은 계명은 첫째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이고, 둘째 복된 삶을 위해서이고,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이다.

열심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결단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본성과 양육 성경: 잠언 12장 1-7절

Tag: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나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5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나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12:1-7)